

러시아의 일본·한국학자 올가 페트로바(Ольга Петровна Петрова, 1900-1993)와
『한국기록문화유산 해제』의 성격 및 의의 *

코바코바 올리아나 **

- 1. 서론
- 2. 페트로바의 생애와 주요 저서
 - 1) 페트로바의 생애
 - 2) 페트로바의 주요 저서
- 3. 동방학연구원, 한국학과 한국 고서
 - 1) 동방학연구원의 역사
 - 2) 동방학연구원의 한국학과 한국 고서
- 4. 『한국기록문화유산 해제』의 성격
- 5. 『한국기록문화유산 해제』의 의의

1. 서론

러시아는 이른 시기부터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이미 17세기부터 유럽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받아 왔었으며, 19세기 중반부터는 러시아 한국학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 당시에는 러시아 연구자와 군인, 외교관들이 한반도를 직접 방문하여 한국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성과들을 자료로 남겼다. 또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연구기관에서도 한국과 관련된 자료들의 정리가 이루어졌다.¹⁾

* 이 논문은 2017년 2월 14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열린 인문한국사업단 제31회 HK워크숍 “동아시아 문헌학과 문헌학자 II”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계명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이른 시기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진 러시아에서는 한국고서가 소장된 장소들이 몇 군데 있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동방학연구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도서관,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국립도서관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또한 구소련 국가 가운데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에도 한국 고서가 소장되어 있다.²⁾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한국 고서가 소장되어 있는 기관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동방학연구원이다. 이 자료들은 유입 과정 및 시기가 알려져 있는 것들도 있지만, 유입 과정을 알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 책 중에 대부분은 러시아 외교관 드미트렙스키(Дмитревский П.А., 1851-1899) 문고와 영국 외교관 애스턴(G.W.Aston, 1841-1911) 문고,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국에서 유입된 것이다.

동방학연구원 소장 한국 고서들은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올가 페트로바에 의해 정리되고 연구되기 시작했다.³⁾ 그 정리의 결과로 페트로바가 만든 『한국기록문화유산의 해제』 상·하권이 1956년과 1963년에 각각 간행되었다.⁴⁾ 동방학연구원 소장 한국 고서들이 정리된 이후에는 각 자료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번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트로체비치와 구리예바가 동방학연구원 소장 한국 고서를 다시 정리하여 해제를 출판하였으며, 페트로바가 한 작업을 수정 및 보충하였다.⁵⁾ 최근 들어 한국 학자들도 동방학연구원의 한국 고서

-
- 1) Концевич Л.Р., 2003 "О развитии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царской России",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140 лет в России*, М.: РАН, с.77-102.
 - 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소장 한국본』.
 - 3) 트로체비치는 1937년에 러시아의 중국학자 플루(Флуг К.К., 1893-1942)이 중국 고서들 중에 있었던 한국 고서 24권의 해제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다만 이 해제는 간행되지 않았고 원고로만 소장 되어 있다. Троцевич А.Ф., Гурьева А.А., 2009 *Описание письменных памятников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2. Корейские письменные памятники в рукописном отделе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чных рукописей РАН*,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бГУ, с.11. (Флуг К.К., 1937 Краткий каталог китайских рукописей, Рукоопись.Рукописный отдел СПб. филиала ИВ РАН)
 - 4) Петрова О.П., 1956 *Описание письменных памятнико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ыпуск 1. М.-Л.: Издательст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Петрова О.П., 1963 *Описание письменных памятнико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ыпуск 2.М.: Издательство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 5) Троцевич А.Ф., Гурьева А.А., 2009 *Описание*.

들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연구원 소장 자료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관과 수집자들에 대한 언급도 함께 이루어졌다.⁶⁾ 또한 동방학연구원 소장 서적의 상세한 목록도 한국어로 작성되어 출판되었다.⁷⁾

이 많은 연구들의 바탕에는 페트로바가 한국학이라는 분야가 아직 정착되지 못했던 1950년대에 시작한 해제 작업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페트로바와 『한국기록문화유산의 해제』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기존에 페트로바와 해제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한 바가 있다.⁸⁾ 본 글에서는 페트로바의 연구업적, 해제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페트로바의 생애와 주요 저서, 해제 작성의 배경과 해제의 성격을 분석하여 그 가치와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2. 페트로바의 생애와 주요 저서

1) 페트로바의 생애⁹⁾

올가 페트로바는 1900년 7월 19일에 이르쿠츠크(Irkutsk)의 시베리아 군 관

6) 박진완, 2010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 애스턴 문고의 한글 자료」 『한국어학』 46: 허경진 · 유춘동, 2012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과 동방학연구소에 소장된 조선전적에 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36: 허경진 · 유춘동, 2013 「애스턴의 조선어 학습서 〈Corean Tales〉의 성격과 특성」 『인문과학』 98: 정병설, 2013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방학 연구소 소장 한국고서의 몇몇 특징」 『규장각』 43: 권진옥, 2015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및 동방학 연구소 소장 희귀본 자료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46: 이해은, 2015 「구한말 러시아의 한국 고서 수집 양상,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와 동방학 연구소 소장본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46: 허경진 · 유춘동, 2015 「애스턴이 수집했던 조선시대 전적의 성격과 가치」 『러시아와 영국에 있는 한국전적 2 연구편: 자료의 성격과 가치』, 보고사, 15-34면.

7)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5 『러시아와 영국에 있는 한국전적 1 자료편: 목록과 해제』, 보고사, 69-169면.

8) 코뱌코바 율리아나, 2010 「『한국기록문화유산의 서술』 소개」 『문헌과 해석』 50, 245-272면.

9) 생애 부분은 Чигринский, М.Ф., 1994 “Памяти О.П.Петровой”, *Петербургское во стоковедение*, вып.5, с.576-577와 Троцевич, А.Ф., 2011 “Петрова Ольга Петровна”, *Письменные памятники Востока* 2(15), с.55-57를 참고하였다.

할지역 제1번 스파스카야 마을의 군인(카자크)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일본인들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

1918년 여자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이르쿠츠크대학교 역사문학부의 몽골·부랴트 학과에 입학하였고, 이듬해에는 극동학과로 전과하였다. 대학교 시절부터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국제 공산당부(코민테른) 소속 일본인 회원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이르쿠츠크와 치타(Чита)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1928년에 페트로바는 블라디보스토크(Владивосток)로 이주하였다. 그곳에 있는 항해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쳤고, 선원들의 국제클럽 일본어학부 강사를 도와주는 일과 함께 태평양 노동맹 사무국(Профинте른)에서 통·번역하는 일을 맡았다. 이듬해인 1929년에는 극동연구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1930년에 극동국립대학교 일본어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

몇 년 후인 1933년에 페트로바는 레닌그라드(Ленинград,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Санкт-Петербург)로 옮겨와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레닌그라드 역사·철학·언어 대학교(ЛИФЛИ) 동양어학과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 1937년에 이 대학교는 레닌그라드 국립대학교 어문학부로 재편되었고, 페트로바는 극동언어 문학과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페트로바는 레닌그라드 국립대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한편, 그때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어 교재를 만드는 데에도 힘을 썼다. 동시에 페트로바는 레닌그라드 해군대학교에서도 일본어를 가르쳤고, 일본어 해군용어와 관련된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페트로바의 생애를 서술한 치그린스키(Чигринский М.Ф)는 이 교과목이 서양의 일본학 가운데 최초로 개발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1941년 6월에는 독일과 소련간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같은 해 9월 8일에는 레닌그라드 봉쇄가 시작되었다. 봉쇄는 1944년 1월 27일까지 이루어졌다. 당시 레닌그라드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많은 기관은 직원들과 함께 피난을 떠났다. 하지만 페트로바는 피난을 가지 않고 레닌그라드에 남았다. 1942년에는 동방학연구원의 직원이 되어 봉쇄된 도시에서 같이 남은 동료들과 함께 연구원의 건물과

유물들을 지켰다. 그리고 피난 갔거나 사망한 학자의 서적과 문서를 보호하는 일도 담당하였다. 페트로바가 전쟁 중에 지켜낸 서적들 가운데에는 일본 아리스 가와노미야 왕자의 문고도 있었다.¹⁰⁾ 학자 모임의 일원으로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그 사이 개인 연구도 멈추지 않고 진행하여, 1943년에는 러·일-일·러 해군용어사전을 완성시켰다. 1944년 레닌그라드 봉쇄가 끝난 이후에는 도시의 복구에 참여하였다. 그녀는 ‘레닌그라드 방어훈장’(За оборону Ленинграда), ‘전쟁시 위대한 노동 훈장’(За доблестный труд в ВОВ)을 수여받았다.¹¹⁾

1947년에 페트로바는 일본 해군용어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방학연구원에서 페트로바는 일본학과 한국학 관련 분과를 맡았고, 일본어와 한국어의 어휘와 기원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녀의 연구 분야 중에 하나는 러시아에서의 일본학의 역사였다. 페트로바가 동방학연구원에 근무할 때 만들어낸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연구원에서 소장된 한국 고서와 일본 고서를 정리하고 그 해제를 서술한 것이었다. 페트로바는 연구원에서 일하는 것과 동시에 레닌그라드 국립 대학교 일본어학과에서도 일을 하였다. 1953년에서 1960년까지는 학과장 임무도 담당하였다.

페트로바는 연구와 교육 외에도 사회적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였으며, 소련·일본 협회, 소련·한국 협회의 레닌그라드부의 일원이자 지도자였다. 그녀는 1993년 3월 11일에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2) 페트로바의 주요 저서

페트로바는 교육자이자 학자로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

10)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루히토(有栖川宮熾仁, 1835-1895)는 1882년에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 일본어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일본으로 돌아간 후 1883년에 일본 필사본과 목판본 서적 등 3,465권을 보내주었다. Maria V. Toropygina, 1998 *Descriptive Catalogue of Japanese Books in St. Petersburg University. A Catalogue of the Arisugawa Collection*. Tokyo, Benseisha.

11) http://www.orientalstudies.ru/rus/index.php?option=com_personaliess&Itemid=74&person=147 (검색 일자: 2017.01.11).

녀의 저서들 가운데는 출간된 자료도 있지만, 출간되지 못한 채 원고 상태로만 남아 있는 자료들도 있다. 이 절에서는 페트로바의 주요 논저들을 일본학과 한국학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페트로바는 1930년부터는 극동국립대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33년 레닌그라드 국립대학교 극동언어문학과에 재직하면서 교재를 만드는 데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1937년 『일본어 회화』(Учебник живой речи японского языка)를, 1940년에는 『대학교 고학년을 위한 일본어』(Стабильный учебник японского языка для старших курсов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를 완성하였다. 독소전쟁이 끝난 이후 그녀는 동방학연구원과 레닌그라드 국립대학교 일본어학과 양쪽 모두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시절에도 교재들을 만드는 일을 계속하였다. 『일본 언어학 입문』(Введение в японскую филологию), 『일본 한문』(Учебник камбуна), 『일본 어휘의 역사』(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японской лексики)라는 교재를 작성하였지만 이 책들은 출판되지 못하였다. 또한 키시다라는 일본 교수와 함께 『초급 일본어』(Начальный курс японского языка) 교재를 만들기도 하였다.

페트로바의 연구 분야 가운데 하나는 일본 해군용어였다. 해군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던 시절부터 해군용어를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1943년에는 러·일·일·러 해군용어 사전을 완성하였다. 치크린스키는 1994년에 이 사전에 대해 평가하면서 이와 같은 성과가 이때까지도 없었다고 언급하였다.¹²⁾ 그러나 이 사전은 결국 출판되지 못했다. 페트로바는 일본의 해군용어를 계속 연구하여 이 주제로 1947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논문에서는 『고사기』, 『만엽집』에서부터 1940년대까지의 일본 선박과 해군용어의 발전을 분석하고 다루었다.¹³⁾

페트로바는 러시아 일본학의 역사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일본학의 성과를 러시아와 일본에 소개하였다. 1965년에는 「소련 언어학자들의 일본어 연구」라는 논문을 『소련에서의 일본어』라는 학술지에 일본어로 발표하였다. 「레닌그라드 국

12) Чигринский, М.Ф., 1994 "Памяти О.П.Петровой", Петербургское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вып 5, с.576.

13) Петрова О.П., 1947 Тезисы дис.: Японская военно-морская терминология: Историко-лексико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с.1-11.

립대학교 일본어학과의 역사』라는 논문도 같은 논문집에 수록되어 있다.¹⁴⁾ 그리고 1965년에 「18세기 전반 러시아에서의 일본어 연구」라는 논문을 출판하였다.¹⁵⁾

페트로바는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일본과 러시아의 자료를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1960년에는 18세기말 이르쿠츠크에 있었던 일본어 학교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이 학교의 학생인 타타리노프(Татаринов)가 1782년에 만든 러·일 사전의 필사본 원고를 발굴하여 발표하였다.¹⁶⁾ 그 다음으로 이 자료를 역주하고 상세한 서문을 수록하여 단행본으로도 출판하였다.¹⁷⁾ 또한 이때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18세기에 러시아를 여행한 뒤 일본에 러시아 문화에 대해 알린 다이코쿠야 코다유(大黒屋 光太夫, 1751-1828)의 『러시아 문자집』이라는 자료를 발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자료는 일본에 러시아 문자를 소개한 최초 자료 중에 하나이다.¹⁸⁾

페트로바는 동방학연구원 소장 한국 고서뿐만 아니라 일본 고서들도 정리하고 해제를 작성하는 데에도 기여를 하였다. 그녀는 이 자료를 일본학 전공자 고레글랴드(Горегляд В.Н., 1932-2002)와 이바노바(Иванова Г.Д.)와 함께 정리하였다. 『일본 필사본, 목판본과 구활자본의 해제』(Описание японских рукописей, ксилографов и старопечатных книг)는 1963-1969년 사이에 4권으로 출판되었다. 제1권은 1963년에 고레글랴드와 함께 편집하였다. 제2권은 이바노바와 고레글랴드와 함께 편집하여 1964년에 출판하였다. 제3권은 1966년에 고레글랴드와

14) <http://www.rauk.ru/> (검색 일자: 2017.05.30).

15) Петрова О.П., 1965 “Японский язык в России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VIII”, *Народы Азии и Африки*, въш.1, с.163-177.

16) Петрова О.П., 1963 “Лексикон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ий”, *Труды Двадцати пят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гресса востоковедов*. М.: 9-16 августа 1960 г. Том V: заседания секций XVI-XX, с.363-368.

17) Петрова О.П., 1962 “Лексикон” *русско-японский* Андрея Татаринова, М:Издательство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с.1-333.

18) Петрова О.П. 1981 “«Росия-мондзисю» – первое японское пособие по рус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1796 г.” *Письменные памятники Востока. Историко-фил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Ежегодник 1974, с.209-222.

함께 편집하였다. 제4권은 1969년에 고레글랴드와 함께 편집하여 출판하였다.¹⁹⁾

1950년에는 동방학연구원 안에서 조직개편이 진행되어 모스크바 지부와 레닌그라드 지부로 나누어졌다. 페트로바는 레닌그라드 지부에 남아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였다. 그 해에는 동방학연구원에 몽골학·한국학부가 신설되었다. 당시 연구원에는 한국학 전문가가 없었다.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페트로바가 일본학부에서 몽골·한국학부로 옮겨왔다.²⁰⁾

이 시기 페트로바는 일본학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한국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953년 페트로바는 「북한에서 언어 문제」라는 논문을 출간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특징, 한글의 창제와 한글로 기록된 문학 등을 소개하였고, 해방 이후 언어학자들이 연구하는 어휘, 문법 관련 과제들을 다루었다.²¹⁾ 다음 해인 1954년에는 「한국의 언어와 문자」라는 논문을 출간했는데, 한국어의 발생과 한문 및 한글 기록을 다루었다.²²⁾ 그리고 한국어의 기원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였다.²³⁾

동방학연구원은 1950년 재편 이후 5년 과제(1951-1956)로 연구원 소장 고서들의 해제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²⁴⁾ 페트로바가 한국 고서의 해제를 만드는 작업

19) Петрова О.П., Горегляд В.Н., 1963 *Описание японских рукописей, ксилографов и старопечатных книг*. Выпуск I. М.: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Петрова О.П., Горегляд В.Н. 1964 *Описание японских рукописей, ксилографов и старопечатных книг*. Выпуск II. М.: «Наука»; Петрова О.П., Иванова Г.Д., Горегляд В.Н., 1966 *Описание японских рукописей, ксилографов и старопечатных книг*. Выпуск III. М.: «Наука», ГРВЛ; Петрова О.П., Горегляд В.Н., 1969 *Описание японских рукописей, ксилографов и старопечатных книг*. Выпуск IV. М.: «Наука», ГРВЛ.

20) Елисеев Д.Д., Никитина М.И., 1972 "Корееведение", *Азиатский музей - Ленинградский отдел ИВ РАН СССР*, М.: Наука, с.205.

21) Петрова О.П., 1953 "Вопросы языка в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въп.3, с.112-20.

22) Петрова О.П., 1954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письменность",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Сборник статей*, с.166-194.

23) Петрова О.П., 1954 "К истории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языка", *Научная сессия 1953-1954 годов ЛГУ. Тезисы докл. по секции востоковедческих наук*, с.3-8.

24) Бертельс Д.Е., 1972 "Введение", *Азиатский музей - Ленинградский отдел*

을 시작한 계기는 바로 이 과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953년에 페트로바는 한국 고서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다.²⁵⁾ 1954년에는 연구원 소장 한국 고서 관련 논문을 출판하였다.²⁶⁾ 이 논문에서는 서적들의 입수과정을 설명하고, 서적들을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법학, 백과사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따라서 페트로바는 한국 고서의 조사를 시작한지 3년 후에는 소장 고서 대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페트로바의 한국고서 해제는 1956년과 1963년에 상·하권으로 출판되었다. 이 해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 동방학연구원, 한국학과 한국 고서

1) 동방학연구원의 역사²⁷⁾

동방학연구원의 역사는 오래 전부터 시작된다. 러시아 황국은 동방국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외교관과 상인들이 수집하여 온 책과 생활물품, 외국 사신단들이 선물로 바친 물품과 서적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18세기 초에는 동방학 서적과 물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와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1714년에는 표트르 대제(1672-1725)의 지시로 쿤스트카메라(Кунсткамера)가 설립되었다. 현재, 민속인류박물관으로 사용되는 이 건물은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는 귀중품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는 동방 국가에서 들어온 서적, 물품, 훈장들도 포함되었다. 1724년 러시아에서는 학술아카데미가 설립되었고, 쿤

ИВ АН СССР, М.: Наука, с.67.

- 25) Петрова О.П., 1953 “Памятники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 рукописных фондах ИВ АН СССР”, *Краткие сообщения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9, с.77-81
- 26) Петрова О.П., 1954 “Собрание корейских письменных памятников ИВ АН СССР”, *Ученые записки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том 9, с.3-29.
- 27) 동방학 역사 부분은 Д.Е. Бертельс, 1972 “Введение”, *Азиатский музей - Ленинградский отдел ИВ РАН СССР*, М. Наука, с.5-80와 <http://www.orientalstudies.ru/rus> (동방학연구원 사이트, 검색 일자: 2017.01.11)를 참고하였다.

스트카메라는 그 소속기관이 되었다. 쿤스트카메라에 소장된 서적들은 학술아카데미의 도서관의 일부가 되었다.

학술아카데미는 프랑스 외교관 루쏘(J.L.Rousseau)에게 이슬람 서적을 구입하기로 하였고, 1818년과 1825년 두 번에 걸쳐 구입하였다. 구입에 앞서 학술아카데미 회장 우바로프(Уваров С.С., 1786-1855)는 이때까지 입수된 서적과 문서들이 많이 있고, 새로 구입된 서적들까지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따로 분과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1818년에는 쿤스트카메라 건물 안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서적들을 옮겨 관리하였다. 그 장소는 아시아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불렸고, 이후 소장된 서적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아시아 국가를 연구하는 것이 외교와 학문의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1930년에는 학술 아카데미 안에 동방학연구원이 건립되었다. 그 당시 유럽에서 큰 규모의 동방학 센터 중 하나인 아시아박물관의 연구원들과 소장 자료들이 모두 동방학연구원으로 이전되었다.

독소전쟁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아시아 국가들과 정치, 외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학술적인 도움이 필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학연구원은 여전히 중요한 기관으로 여겨졌다. 1950년에 학술 아카데미는 동방학연구원을 레닌그라드 지부와 모스크바 지부로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1949년에 레닌그라드 지부는 학술아카데미의 건물에서 현재의 건물로 이전하였다.

1951년에 동방학연구원 본관은 모스크바로 이동했고, 그동안 수집된 고서와 고문서 자료들은 레닌그라드에 남았다. 이 자료들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이 자료만을 보관하고 다루는 별도의 기관이 요구되었다. 1956년 이곳은 소련 학술아카데미 동방학연구원 레닌그라드 지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1960-70년대에는 아시아 민족연구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레닌그라드 지부에서 진행한 주요 사업으로는 고서조사, 목록제작이 있었다. 또한 목록과 해제, 연구와 번역서들이 간행되었다.²⁸⁾

28) 1970년에는 모스크바지부와 레닌그라드지부간의 연구의 방향이 공식적으로 나누어졌다.

레닌그라드 지부는 고서연구 및 번역, 근대 이전의 동방의 역사, 언어, 문화, 사상 등을 연구 과제로 삼았다.

2007년에는 러시아 학술아카데미의 동방학연구원이 재편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부가 'Institute of Oriental Manuscripts'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십만여 종의 고서, 동방학자들의 아카이브, 동방학 역사관련 문서 등이 소장되어 있다. 이 기관은 세계적인 동방 고서의 보관소로, 65개 언어로 작성된 고서들이 있다. 그 외에도 동방학의 주제별로 모은 큰 도서관이 있다.

2) 동방학연구원의 한국학과 한국 고서

동방학연구원에는 1930년에 진행된 재편까지 한국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가 1930년에 일본학·한국학부가 생겼다. 이 분과는 일본학·한국학부였지만 주로 일본을 연구하였다. 러시아 동방학자 콘라드(Конрад Н.И., 1891-1970)는 한국에서 일본의 정치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방학자 홀로도비치(Холодович А. А., 1906-1977)는 1936년에 한국어 문법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에 그는 동방학연구원에 재직하였고, 한국어의 어휘와 문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계속하였다. 1937년에 홀로도비치는 『한국어 문법』(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이라는 작업을 완성하였다. 또한 한국어의 러시아어 표기법, 한자의 한국어 발음 표기법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홀로도비치는 한국의 역사와 문학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1938년에 홀로도비치는 한·러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1940년에 한국 역사에 대한 저술을 쓰기 시작하였다.

독소전쟁 이후부터 1950년에 있었던 동방학연구원 내부의 재편까지 한국학 연구는 중단 상태에 있었다. 1950년에는 몽골학·한국학부가 설립되었는데, 그 당시에 연구원에서는 한국학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 어휘에 관심이 있는 페트로바가 일본학부에서 이 학부로 옮겨왔다. 1954년에는 엘리세예프(Елисеев Д.Д., 1926-1994)가 레닌그라드 국립대학교 한국어과를 졸업하여 이 분과에 임명되어 왔다. 엘리세예프는 페트로바가 한국 고서의 해제를 작성할 때 기초 작업의 일부를 도와주었다. 1957년에는 니키티나(Никитина М.И., 1930-1999)와 트로체비치가 한국어과를 졸업하여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그리하여 3명의 한국학자가 한국분과의 일을 맡아 한국학, 주로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3명의 연구원은 한국 고전문학 작품을 러시아어로 번역도

하고, 이론적인 연구도 진행하였다. 또한 동방학연구원 소장 고서들도 연구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1957년에 니키티나와 트로체비치가 『쌍천기봉』을 번역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한국 텍스트 영인본과 함께 출판하였다.²⁹⁾ 1966년에 3명은 따로 한국 분과를 구성하였고, 한국학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다.³⁰⁾

동방학 연구원 소장 한국 고서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페트로바의 해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페트로바는 1956년에 출판된 상권 서문에서 연구원의 한국 고서를 다음의 4가지 분류로 나누었다.³¹⁾

① 러시아 외교부의 아시아국 문고

아시아국은 1819년에 러시아 외교부에 설립된 기관이다. 아시아국은 동양 국가를 연구하는 분과와 외교관 학교가 있었다. 연구와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³²⁾ 아시아국은 1864년에 한국 고서를 포함한 여러 서적을 그 당시에 아시아박물관에 기증하였다. 페트로바의 해제에서 아시아국 문고의 서적은 7종이 확인된다(『東國史略』, 『東史會綱』, 『東國歷代總目』, 『欽定滿洲源流考』, 『書傳大全』, 『耳溪遺集鈔』, 『東醫寶鑑』).³³⁾

② 애스턴 문고

애스턴은 영국 외교관이다. 그는 20여 년 동안 일본의 영사관에서 근무를 하였고 1884-85년 주한 영국총영사로 있었다.³⁴⁾ 그는 일본과 한국에 있는 동안

29) Никитина М.И., Троцевич А.Ф., 1961 *Счастливая встреча двух браслетов*.

30) Елисеев Д.Д., Никитина М.И., 1972 “Корееведение”, *Азиатский музей - Ленинградский отдел ИВ РАН СССР*, М.: Наука, с.202-208.

31) Петрова О.П., 1956 *Описание...*, с.3.

32) Вигасин А.А.[и др.], 1997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 серединой XIX века до 1917 года*, М.: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с.150-167.

33) 이 서적들은 1864년 이전부터 러시아에 유입되었을 것이다. 다만 이 서적들의 유입과정을 밝히기 위해 작업이 필요하다. 페트로바는 1954년의 연구원 소장 한국 고서 관련된 논문에서는 1844년에 작성된 아시아국 박물관 목록에는 『동의보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 Петрова О.П., 1954, с.4.

34) 코뱌코바 올리아나, 2008 「애스톤 문고 소장 『Corean Tales』에 대한 고찰」 『서지학보』

에는 언어, 문학,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일본과 한국 서적을 수집하였다. 애스턴 문고는 1903년 이후 러시아 극동위원회가 구입하였고 1906년 동방학연구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³⁵⁾

③ 드미트렙스키 문고

드미트리옙스키는 러시아의 외교관이다. 그는 오랫동안 중국과 한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한국에 있을 당시 한국에 대해 공부를 하였고, 여러 서적을 수집하였다. 동방학연구원은 1907년에 그의 서적들을 구입하였다.³⁶⁾

④ 기타 여러 기관과 개인에게서 수집된 서적

페트로바는 서적의 유입 과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각 해제 밑에 밝혔다. 여러 기관과 개인에게 유입된 서적들은 다음 같다. 1845년에 건립된 러시아 지리학회 문고의 서적 『三國通覽圖說』,³⁷⁾ 동방학자이자 외교관 고시케비치 (Гошкевич И.А, 1814-1875) 문고의 『여수성교성셔맛되복음』이 있다. 그리고 주재 러시아 조선 총영사 이범진(1852-1910)이 기증한 『大典會通』, 본스테드가 기증한 『醫學入門』이 있다. 브로쎄(Броссэ M. И Marie-Xavier F. Brosset, 1802-1880) 문고의 서적은 『한·중 한자 사전』,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 『類合』, 『東醫寶鑑』이 있다.³⁸⁾

32, 81-82면.

35) 애스턴 문고 유입과정에 대해 트로체비치가 상세히 소개하였다. Троцевич А.Ф., Гурьева А.А., 2009 *Описание...,* с.13-17.

36) Хохлов А.Н., 1998 "П.А.Дмитревский - российский дипломат и востоковед." Корея.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к 8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М.Н.Пака, с.284-296.

37) 삼국통람도설은 본래 하야시 시헤이가 작성한 일본 서적이다. 이 책은 애스턴 문고에도 소장되어 있는데, 페트로바는 지리학회문고에도 같은 책을 해제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38) 브로쎄는 프랑스의 그루지아어와 아르메니아어의 연구자이다. 그는 1836년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방학연구원에서 근무하였다. 브로쎄는 1840년에 동방학연구원 소장 중국 서적을 정리하였다. 1840년에 정리된 중국 서적들은 브로쎄 문고라는 명칭을 받았다. 브로쎄 문고에서 입수된 한국 서적은 아시국 문고의 서적들과 같이 러시아로 유입된 과정이

이 네 가지 분류 외에도 유입과정이 불명확한 서적들 몇 종이 있다. 또한 수집 과정에 대해 아무 기록이 없는 서적도 몇 종이 있다.

연구원 소장 한국 고서는 이후에도 계속 연구의 대상이 되었으며 정리가 이루어졌다. 2009년에 트로체비치와 구리예바는 동방학연구원 소장 한국 고서의 해제를 다시 작성하였다.³⁹⁾ 그들은 페트로바의 해제에 수록되어 있는 일본 서적과 중국 서적을 제외시켰고, 나중에 발견된 한국 고서를 추가하였다. 그 중에는 뮐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 1848-1901) 문고의 한국 고서(17종)와 중국 고서 가운데 발견된 한국 고서들도 포함되었다.⁴⁰⁾ 그리하여 이 책에서 총 169종의 한국고서의 해제를 수록하였다. 또한 이 해제에서는 애스턴이 직접 작성한 한국 서적과 한국에 관련된 서적의 목록이 정리되고 공개되었다.

2015년에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동방학연구원의 전적을 조사한 바가 있다.⁴¹⁾ 그 조사의 결과로 동방학연구원 소장 176종의 서적이 한국어로 소개되고 목록으로 정리되었다.

4. 『한국기록문화유산 해제』의 성격

페트로바는 1942년부터 동방학연구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1950년에는 몽골·한국학부에 옮겨와서 한국학 관련 연구를 담당하였다. 연구원은 1951년에서 1956년까지 5년간 소장하고 있는 고서자료를 정리하고 해제를 만드는 것을 과제로 정하였다. 이 과제는 페트로바가 한국 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한 계기가

밝혀져 있지 않다.

39) Троцевич А.Ф., Гурьева А.А., 2009 *Описание.*

40) 트로체비치는 뮐렌도르프 문고를 2004년에 소개한 바가 있다. Троцевич А.Ф., 2004 “Письменные памятники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з коллекции СПб. филиала ИВ РАН”, *Вест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вып.7, с.195-205.

41)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5 『러시아와 영국에 있는 한국전적 1 자료편: 목록과 해제』, 보고사.

된 것으로 보인다.⁴²⁾ 1953년과 1954년에는 이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1956년에는 해제 상·하권 가운데 상권이 출간되었고 하권은 1963년에 출간되었다.

해제의 작성은 위해 먼저, 한국 고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참고해야 하였다. 페트로바는 여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책들을 참고문헌에서 ‘해제’와 ‘목록’으로 분류하여 밝혀 놓았다. 이 자료들은 모두 외국 자료들이고, 이 중에서는 서양어로 된 자료와 일본어, 한국어로 된 자료들이 있다.

[상권의 참고문헌: 해제]

- * Henri Cordier. Bibliotheca Sinica. Dictionnaire bibliographique des ouvrages relatifs a l'empire Chinois, I-IV. Paris, 1904. supplement et index, Paris, 1922.
- *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eenne. (La nomenclature des ouvrages publiés dans ce pays jusqu'en 1890, ainsi que la description et l'analyse d'ailleurs des principaux d'entre ces ouvrages), I-III, Paris, 1895.
- * 朝鮮圖書解題, 朝鮮總督府, 서울, 1915, 352면.
- * 朝鮮圖書解題, 朝鮮總督府, 서울, 1932, 573면.
- * 桂五十郎, 漢籍解題, 동경, 1913, 890면.
- * 佐村八郎, 増訂 國書解題 I-II, 동경, 1932, 2090면.
- * 조선어사강독, 평양, 1953, 768면.
- * 최현배, 한글갈, 서울, 1942, 829면.

[상권의 참고자료: 목록]

- * L.Serrurier. Bibliotheque Japonaise Catalogue raisonne des livres et des manuscrits japonais enregistres a la bibliotheque da l'universite de Leyde, 1896, 296p.
- * Robert Kennaway Douglas. Catalogue of Japanese printed books and manuscripts in the British Museum acquired during the years 1899-1903. London 1904, 98p.
- * 東洋文庫岩崎文庫和漢書目錄, 동경, 1932, 485면 + 82면 부록.
- * 東洋文庫小田切文庫目錄, 동경, 1938, 226면 + 67면 부록.
- * 金澤庄三郎, 朝鮮書籍目錄, 출판사 미상, 1911, 2면 서문 + 72면 본문.

42) 트로체비치는 페트로바가 한국 고서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소련과 북한간의 문화교류가 활성화된 것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Тропевич А.Ф., Гурьева А.А. 2009 *Описание...*, с.11.

- * 東洋文庫朝鮮本分類目錄, 동경, 1939, 101면.
- [하권의 참고문헌: 해제 (새로 추가된 것만 표시함)]
- * 조선서지학개관, 평양, 1955, 319면.
- [하권의 참고자료: 목록 (새로 추가된 것만 표시함)]
- * 前間恭作, 古鮮冊譜, 동경, 1944(1권), 1956(2권), 1957(3권)
- * О.П.Петрова, Описаник письменных памятников корей ской культуры выш 1, М Л. Изд-во АН СССР, 1956, 80 стр.

위에서 인용된 주요 해제와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르디에(H. Cordier, 1849-1925)의 해제는 프랑스어로 작성한 중국서적과 중국에 대한 서적들의 해제이다. 다음은 프랑스어로 출판된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1865-1935)의 『한국서지』이다.⁴³⁾ 『조선도서해제』는 서울에서 1915년과 1932년에 출판되었는데, 페트로바는 두 서적 모두를 활용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출판된 중국 서적의 해제와, 일본도서 해제도 살펴보았다. 상권을 저술할 때에는 한글로 된 서적 가운데 평양에서 1953년에 출판된 『조선어사강독』, 1942년에 서울에서 출판된 『한글 갈』을 참고하였다. 『한글 갈』은 주로 영인된 사진자료와 해제하는 서적들을 비교를 할 때 언급이 되고 있다. 하권에서는 그 외에도 1955년 평양에서 출판된 『조선서지학개관』을 활용하였다.

목록에서는 1896년에 출판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 소장 일본서적 목록, 1904년에 출판된 영국 대영박물관 일본서적의 목록, 그 다음으로는 동양문고의 일본 서적, 중국 서적, 한국 서적의 목록, 오다기리 문고의 목록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1911년 일본에서 간행된 『조선서적목록』과 1939년의 『동양문고 조선본 목록』이 이용되었다. 또한 하권에서는 마에마 고사쿠(前間恭作)의 『고선책보』가 추가되었다.

페트로바는 이 해제 중에서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와 『조선도서해제』 1932년 간행본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목록에서도 한국 고서의 목록인 『동양문고 조선본 목록』과 『고선책보』를 가장 많이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페트로바는 실제적으로 이 해제와 목록만을 참고하지 않고, 저술하는

43) 모리스 꾸랑(이희재 옮김), 1994 『한국서지』, 일조각.

자료가 번역된 경우에는 그 번역본까지 참고하였다. 예를 들어, 215번의 『최충전』은 애스턴이 영어로 번역한 글을 보고 작품의 내용을 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⁴⁾ 이러한 번역본들은 참고문헌을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을 상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서 페트로바는 『한국기록문화유산 해제』를 작성하는 동안에 참고문헌에 수록된 해제와 목록 이외에도 많은 자료를 보았음을 알 수 있다.

해제의 서문에서는 서적들의 작성된 언어(한글, 한문, 일본어)가 소개되었다. 그 이후 페트로바는 한국의 출판문화와 고서의 형태, 한국인의 성명과 명칭에 대해 서술하였다. 또한 이 해제에서 사용할 러시아어 표기법과 서지적 기술을 설명하고 해제를 작성할 때 참고한 자료의 목록을 밝혔다.

페트로바는 서문을 작성할 때 활용한 참고문헌을 따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주요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의 서문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였다. 한국의 서적, 한지, 필사본의 특징, 목판 인쇄 방법과 활자 인쇄 방법, 목판본과 활자본을 구분하는 기준을 참고하였다. 또한 해제에서는 서적의 저자와 편집자에 대한 소개를 해야 하였기 때문에 한국 문인의 본관, 족보제도, 자·호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드미트렙스키가 번역한 자료를 활용하였다.⁴⁵⁾ 드미트렙스키는 한국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쓰시마 섬 통역관 오타나 키구로가 쓴 기록’이라는 자료가 한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였다. 이 번역은 1884년에 러시아 지리학회 학술지에서 출간되었다. 러시아 지리학회는 자료의 중요성과 번역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여 드미트렙스키에게 금메달을 수여하였다. 일본·한국학자 콘라드(Конрад Н.И., 1891-1970)가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작성한 보고서도 활용하였다.⁴⁶⁾ 또한 한국 서적의 역사에 대해서는 김정도

44) W.G.Aston, 1900 “Choi-Chung. A Korean Marchen”,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t. XXVIII, pp.1-31.

45) Петрова О.П., 1956 *Описание*, с.12 (Дмитревский П.А., 1884 “Заметки переводчика, составленные переводчиком при окружном управлении на Острове Цусима, Отано Кигро в 1794”, *Записки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т. 12 № 4).

46) Петрова О.П., 1956 *Описание*, с.12 (Конрад Н.И., 1915 рукопись, архив АН СССР

(金正道)⁴⁷⁾라는 사람이 많이 도와주어 감사하다는 주석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페트로바는 여러 서양어와 일본어 해제 및 목록, 번역서, 한국 자료, 한국에 대한 러시아어로 된 자료와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해제 작업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해제에서 ‘한국 서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페트로바는 ‘한국 서적’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넓은 범위로 인식하였다.

- 1)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제작한 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문현통고』의 한국 번각본도 이 해제에 포함시켰다. 또한 한국에서 간행되고 필사된 사서오경도 해제에 당연히 수록하고 있다.
- 2) 한국인이 창작하거나 편찬한 책이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에서 출판된 『동의보감』의 축약 목판본도 포함되어 있다.
- 3) 한국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 서적들이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과 관련된 일본 서적, 특히 ‘한국 근대사(19세기의 역사)’라는 항목은 일본어로 된 서적과 부산에서 일본어로 간행된 신문들도 수록되어 있다.⁴⁸⁾

한국분과에 포함시켜야 하는 서적의 개념을 이와 같이 정의한 것은 페트로바만이 아니었다.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에서도 한국에서 재간행된 중국 『문현통고』(2173번)가 수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모리스 꾸랑의 한국 서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애스턴이 작성한 한국과 한국관련 서적의 간략한 해제를 들 수 있다. 이 해제의 제목은 ‘한국’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1) 전부 또는 일부가 한글로 작성된 서적, 2) 한국인들이 한문으로 작성한 서적, 3) 한국관련 일본어 또는 한문으로 작성된 서적으로 분류하였다.⁴⁹⁾ 애스턴 문고가 동방학 연구원으로 입수된 당시에는 이 세 가지 분류의 서적들이 모두가 입수된 것으로 보인다.

페트로바가 해제에서 사용한 분류는 동양의 전통적인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

Ф. 148, оп.1, № 94).

47) Петрова О.П., 1956 *Описание*, с.9.

48) 페트로바의 해제에서 일본 서적과 중국 서적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서평에서 문제제기가 되기도 하였다. 페트로바가 한국에 관한 일본 서적을 해제에 포함시킨 것은 애스턴 문고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까지 함께 수록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9) Троцевич А.Ф., Гурьева А.А., 2009 *Описание*, с.330-363, с.401-422.

이 아니다. 동양의 해제와 목록을 많이 인용한 페트로바가 사부분류법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해제의 서적들은 역사, 문학, 의학 등의 학문 분야별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는 서양 독자에게 보다 이해하기 쉬운 분류라고 할 수 있다. 해제에서 참고문헌 가운데 많이 활용된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 역시 사부분류법으로 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는 해제의 구성을 살펴보겠다(아래의 〈표 1〉 참조). 상권의 본문에는 한국통사, 임진왜란사, 한국의 19세기의 역사, 한국 외교사, (한국에서 간행된) 중국역사에 관한 책, 한국 유교사, 지리학, 민속학, 법학이라는 분야가 있다. 본문의 끝에는 서적의 도판 16장과 도판의 목록이 실려 있다. 하권도 상권과 마찬가지로 서문으로 시작된다. 여기서는 하권의 분류에 대해 서술하고 수록된 서적의 작성언어와 서지적 기술을 설명하였다. 서문 뒤에는 참고문헌을 수록하였다. 하권에는 상·하권의 색인이 있고 서적의 도판 16장과 목록이 실려 있다. 상권에는 9가지 분야가 있고, 하권은 10번째 분야부터 시작된다. 하권의 본문에는 사상, 언어학, 문학, 문헌비고, 의학, 문헌이라는 분야가 있다. 그 중에 사상, 어학, 문학이라는 분야는 하위분류로 나누어진다. 이를 통해 해제의 분야들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한국기록문화유산 해제』 상·하권의 구성

한국기록문화유산 해제 (상권)	한국기록문화유산 해제 (하권)
서문	서문
I. 한국통사	X. 사상
II. 1592-1598년 일본의 침략(임진왜란)과 관련된 문헌	한국에서 간행된 유교경서 및 유교경서의 번해본
III. 한국 근대사(19세기의 역사)	한국에서 간행된 신유학 경서
IV. 한국 외교사	한국 신유학 서적
V. 한국에서 간행된 중국 역사에 관한 책	한국의 유교 윤리·도덕적 근본
VI. 한국 유교사	종교로의 유교
VII. 지리학	한국의 다른 종교
VIII. 민속학	XI. 언어
IX. 법학	사전
자료 도판과 도판목록	한국어 교과서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과서
	간독
	XII. 문학

	중국어와 한국어로 기록된 문학 작품 한국 민중의 서사문학 장편소설 XIII. 문현비고 XIV. 의학 XV. 문현 색인
--	---

페트로바는 한 종의 문집을 여러 분야에서 다루었다(아래의 〈표 2〉 참조). 예를 들어 『西厓集』에 나오는 임진왜란에 관련된 내용을 ‘임진왜란사’라는 항목에 포함하였고, 사상에 관련된 내용을 ‘사상’이라는 항목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문집에 실린 한시 등의 문학적인 글을 ‘문학’이라는 항목에 수록하였다.

〈표 2〉 단일 문집이 여러 항목에 수록된 사례⁵⁰⁾

서명	임진왜란사	사상	공식문학
李忠武公全書	33번	-	169번
西厓集	35번	125번	170번
白沙集	38번	134번	171번
佔畢齋集	-	122번	166번
退溪先生文集	-	123번	167번
一齋先生集	-	124번	168번
知守齋集	-	135번	172번
楓臯集	-	127번	173번
梅山集	-	128번	175번
四忠集	-	132번	176번

위의 사례와 같이 하나의 책이 중복되어 수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제상 · 하권에서는 236종의 해제를 수록하였지만, 실제로 다른 서적의 종수는 그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해제의 서지적 기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50) 코뱌코바 올리아나, 2010 앞의 논문, 268면 재인용.

D 35 (F57)⁵¹⁾**國朝寶鑑 (Кукчо богам)**

“조선왕조의 보배로운 연대기”

편집자: 김조경(金趙璥), 자 경서(景瑞), 호 하서(荷樓), 본관 풍양(豐壤), 1727~1802
언어: 한문

이 서적은 다음과 같은 연대기를 바탕으로 하여 1781년에 편찬되었다. 1457년에 신숙주(申叔舟)가 편찬한 『국조보감』; 1684년에 이단하(李端夏)가 선조를 위해 편찬한 『선묘보감(宣廟寶鑑)』; 1730년에는 윤순(尹淳)이 숙종을 위해 편찬한 『숙묘보감(肅廟寶鑑)』. 다른 왕들의 역사를 서술할 때에는 여러 연대기와 개인 기록들을 이용하였다. 1848년에 이 연대기는 정조·순조·익종의 연대기를 추가하여 편찬되었다. 여기에는 1782년에 작성된 정종의 서문과 1848년에 작성된 철종의 서문이 있다. 이 서적은 결본(缺本)이다. 영조시기에 기록이 중단되었다.

1848년의 목판본

印: 애스턴의 ex-libris

애스턴문고: 36cm×23cm: 22책 68권, 1,805장. 장번호 한자 권별로 매김; 한지: 표지는 없음.

해제: M.Cour., Bibl. cor. Nal1897; 朝鮮圖書解題, 1932, 45면.

목록: 東洋文庫朝鮮本分類目錄, 11弩, VII-2-3; 東洋文庫岩崎文庫和漢書目錄, 366면 (목판본 82권 26책).

이상의 예문을 통해 해제의 서지적 기술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청구기호가 제시된다. 만약 아시아국이나 학술아카데미 도서관의 청구 기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기호도 함께 팔호 속에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자료의 본래 제목과 제목의 발음을 러시아어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아래에는 제목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기록하였다. 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성명, 자, 호, 본관, 생몰년도 등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자료가 작성된 언어(한문, 한글, 일본어)를 표시하고 내용에서는 자료에 대한 소개를 적었다. 이 내용의 분량은 서적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내용 다음에는 출판사항을 기록하였는데, 제작 연대와 판사항을 밝혔다. 다음은 서지사항으로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문고, 입수연도, 크기, 권책수, 장수, 형태적 사항 및 손상정도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마지막

51) 한국어 번역은 필자에 의함.

막으로는 해제 작성에 참고한 해제와 목록을 기록하였는데, 이 책이 수록된 번호 또는 페이지 번호까지 표기하였다.

페트로바의 해제는 출간된 이후 학계에서 주목을 받아 이에 대한 서평이 간행되었다. 상권이 출간된 1956년에는 페이지(G.D.Paige, 1929-2017)의 서평이 나왔다.⁵²⁾ 페이지는 이 책을 3부작 가운데 첫 번째 책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한국 고서의 입수과정, 해제의 서문, 분류 항목과 서지적 기술을 소개하였다. 이 해제는 동방학연구원 소장 자료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최초 자료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1964년에는 러시아의 중국학자인 리프틴(Рифтин Б.Л., 1932-2012)이 상·하권에 대한 서평을 작성하였다.⁵³⁾ 리프틴은 이 해제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 가운데는 일본 서적을 포함시킨 것, 여러 항목들의 제목, 예를 들어 ‘한국 민중의 서사 문학’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번역서인 『삼국지』를 포함시킨 것과 같은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몇몇 서적의 제목과 동양의 글쓰기 형식, 예를 들어 전(箋), 명(銘), 제문(祭文) 등의 러시아어 번역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페트로바의 해제는 1968년에 출판된 스킬렌드(W.E.Skillend, 1926-2010)의 『Kodae Sosol』을 비롯하여 러시아 소장 한국 고서를 언급하고 연구한 수많은 글에서 활용되었다.⁵⁴⁾

5. 『한국기록문화유산 해제』의 의의

페트로바는 동방학연구원 소장 한국 고서를 정리하여 1956년과 1963년에 해제

-
- 52) G.D. Paige, 1956 “The Korean collection of the division of oriental manuscripts, academy of Sciences of the USSR: A bibliographical not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19 No 3/4, pp.409-411. 페이지는 페트로바의 해제를 높이 평가하여 번역할 의사를 나타내었다.
 - 53) Рифтин Б.Л., 1964 “Рец. на кн.: Петрова О.П. *Описание письменных памятник о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ъш. I-II. М., 1956-1963”, *Народы Азии и Африки*. въш. 5., с.188-192.
 - 54) W.E.Skillend, 1968 *Kodae Sosol: A Survey of Korean Traditional Style Popular Novels*, SOAS.

상·하권을 출판하였다. 그녀는 1950년에 동방학연구원 내부 재편의 결과로 설립된 몽골·한국학부로 옮긴 후 한국 고서를 처음 접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페트로바는 이미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연구자이자 교육자였다. 그녀는 일본어에 능통했고, 중세와 근대 자료를 다루고 연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한국어에 대해 연구를 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불모지와 다름없는 한국학의 환경 속에서 한국 고서에 대한 해제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 해제는 현대 한국학이 시작되는 초창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리프틴이 서평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계점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치와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이 해제는 러시아에 있는 한국 고서의 본격적인 정리와 연구의 출발이었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후대 연구자들에게 자료에 대한 파악과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둘째, 이 해제에서 페트로바는 참고문헌에 있는 정보와 실제 자료를 연결시켜 주었다. 페트로바는 서적의 저자, 창작과정,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한 정보를 참고문헌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실제 자료의 형태 서지적 사항, 손상 정도, 표지와 속지에 있는 기록까지 직접 확인하여 각 자료에 대해 상세히 서술해 주었다.

셋째, 이 해제를 통해서 단지 자료만이 정리된 것이 아니라 한국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정리되었다. 이 해제는 러시아어로 된 한국의 고서와 출판문화에 대한 전문 서적이 되었다. 또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주제어 : 올가 페트로바, 한국기록문화유산 해제, 동방학연구원, 드미트렙스키, 애스턴, 러시아 한국학

투고일(2017. 6. 2), 심사시작일(2017. 6. 8), 심사완료일(2017. 6. 14)

〈부록〉『한국기록문화유산 해제』에 수록된 서적 목록⁵⁵⁾

1.三國史記	61.善隣風雅後編	121.御製小學諺解	181.杜律
2.三國遺事	62.仙槎筆譚	122.彝尊錄	182.八大家文抄
3.東國史略	63.한국과독일간의통상조약	123.退溪集	183.百聯抄解
4.朝鮮史略	64.朝俄陸路通商章程	124.一齋先生集	184.五倫歌
5.東鑑	65.新刊司馬文正公稽古錄	125.西厓集	185.제목없음
6.東鑑	66.通鑑綱目	126.耳溪遺集鈔	186.남훈티평가南薰太平歌
7.東鑑	67.漢書評林	127.楓臯集	187.숙영낭조전淑英郎子傳
8.木齊家摺彙纂麗史	68.十七史	128.梅山集	188.소대성전蘇大聖傳
9.東史會鑑	69.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	129.童蒙先習	189.소대성전蘇大聖傳
10.朝野記聞	70.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	130.啓蒙篇諺解	190.豆웅겸趙雄傳
11.朝野輯要	71.續史畧翼箋	131.낙훈체스	191.심청정단沈清傳
12.國朝寶鑑	72.萬姓統譜	132.四忠集	192.금방울전金鈴傳
13.國朝寶鑑	73.欽定滿洲源流考	133.禮書劄記	193.님장군전林將軍傳
14.紀年兒覽	74.博古	134.白沙集	194.격성의전赤聖義傳
15.海東繹史	75.分黨記	135.知守齋集	195.장풍운전張風雲傳
16.啓蒙朝鮮史略	76.黨論原流	136.敬信錄諺釋	196.구운몽九雲夢
17.國朝征討錄	77.莊陵志	137.持經靈驗傳	197.진더방전권지단陳大方傳
18.南漢日記	78.附六臣傳	138.여수성교성서맛되복음	198.농문전단龍門傳
19.明義錄	79.戊午史禍	139.訓蒙字會	199.양풀전梁豐傳
20.明義錄諺解	80.黃江師弟問答	140.三韻聲彙	200.백학선전단白鶴扇傳
21.신미록	81.孝廟己亥三月十一日尤菴獨對說話	141.全韻玉篇	201.숙향전熟香傳
22.憲宗紀史	82.井邑日記	142.全韻玉篇	202.설인귀전薛仁貴傳
23.關西賓興錄	83.三國通覽圖說	143.類合	203.설인귀전薛仁貴傳
24.日記	84.三國通覽圖說	144.類合	204.설인귀전단
25.璿源系譜記略	85.朝鮮地誌	145.千字文	205.장화홍년단
26.璿源世紀	86.朝鮮全圖附錄	146.제목없음	206.홍부전興甫傳
27.璿源系譜記略	87.朝鮮國細見全圖	147.交隣須知	207.춘향전

55) 코야코바 윤리아나, 2010 「『한국기록문화유산의 서술』 소개」 『문현과 해석』 50, 270면 재인용.

28.海東史	88.易言	148.交隣須知	208.단티종전
29.東國歷代總目	89.易言	149.Manual of Korean	209.우주호연玉珠好緣
30.平壤誌	90.易言	150.漂民對話	210.삼설기三說記
31.平壤續誌	91.상례초연학종	151.韓語訓蒙	211.삼설기三說記
32.東萊邑誌	92.류공희동서	152.Dialogues in Korean	212.양산박전楊山柏傳
33.李忠武公全書	93.규합총서	153.日韓善隣通語	213.삼국지
34.節谷先生遺蹟	94.進饋儀軌摠目	154.韓語入門	214.삼국지
35.西厓集	95.大明律講解	155.제목없음	215.최충전崔忠傳
36.懲慾錄	96.大典通編	156.重刊老乙大	216.Corean tales
37.임진록	97.大典通編	157.重刊老乞大諺解	217.雙釧奇逢쌍천기봉
38.白沙集	98.大典會通	158.華音啓蒙	218.東遊記동유기
39.漢陰文稿附錄	99.大典會通	159.華音啓蒙諺解	219.隨史遺聞쉬스유문
40.職方外記	100.法規類編	160.華語類抄	220.報恩奇遇錄보은기우록
41.高麗陣日記	101.欽書	161.譯家必備	221.하와진두가족의역사
42.征韓偉略	102.無冤錄諺解	162.언간독	222.玄氏兩雄雙麟記현시양웅쌍룡기
43.繪本朝鮮軍記	103.兩銓便攷	163.簡禮彙纂	223.和靜善行錄화정선횡록
44.繪本朝鮮征伐記	104.御製戒酒綸音	164.簡牘精要	224.제목없음
45.朝鮮物語	105.字恤典則	165.東文選	225.雪冤
46.朝鮮物語	106.大學類義	166.佔畢齊集	226.東國文獻備考
47.朝鮮聞見錄	107.大學章句	167.退溪先生文集	227.東國文獻備考
48.朝鮮事情	108.大學諺解	168.一齊先生集	228.文獻通考
49.朝鮮新論	109.中庸章句	169.李忠武公全書	229.據曹龜鑑
50.朝鮮軍記	110.中庸諺解	170.西厓集	230.東醫寶鑑
51.朝鮮歸好餘祿	111.孟子	171.白沙集	231.東醫寶鑑
52.朝鮮新報	112.孟解	172.知守齋集	232.醫學入門
53.善隣國寶記	113.書傳大全	173.楓臯集	233.倭韓醫談
54.蠻蠅抄	114.儀禮	174.耻菴集	234.劄字臘錄
55.朝鮮物語附柳川始末	115.儀禮圖	175.梅山集	235.편지의 사본
56.倭韓唱酉川集	116.儀禮旁通圖	176.四忠集	236.1897년 왕의 경비부대 문서
57.七家唱和集	117.延平李先生師弟子答問	177.耳溪遺集鈔	
58.桑韓墳墓集	118.二程全書	178.林庄世稿	
59.骨董錄	119.朱書百選	179.圭齊集	
60.善隣風雅	120.小學	180.三隱詩	

〈Abstract〉

Olga Petrova and the Value of the *Description of the Written Heritage of Korean Culture* (volume 1 1956, volume 2 1963).

Uliana Kobyakova *

Russia was one of the first countries to research the Korean peninsula and collect related materials. Russian libraries and institutions have not only published materials related to Korea, but have also collected a large number of old Korean books. The Institute of Oriental Manuscripts in St. Petersburg holds the largest collection of old Korean books in Russia. This collection was catalogued and arranged in the 1950s and 1960s by Russian Japanologist and Koreanist Olga Petrova (1900-1993) and published in two books in 1956 and 1963.

Olga Petrova was a scholar and educator who worked both at Leningrad State University as a professor of Japan Studies, and in the Institute of Oriental Manuscripts as a researcher. She compiled several textbooks of the Japanese language for undergraduates, created a Russian - Japanese and Japanese Russian dictionary of naval terms, and conducted research on Japanese lexicology, the Russia - Japan relationship, and the Korean language. With other colleagues she also catalogued old Japanese books held in the Institute of Oriental Manuscripts.

In 1950, Olga Petrova became a specialist in the newly established Mongolian - Korean Studies division of the Institute and began to study old Korean books held there. She catalogued great numbers of books from the collections of P.A. Dmitrevsky (1851-1899), a Russian diplomat who worked in China and Korea over two decades, and W.G. Aston (1841-1911), a British diplomat who spent a twenty five years in Japan and Korea; in addition, some of books came from the Asiatic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s well as other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books, Petrova referred to several catalogues in Japanese

* Keimyung University.

and various European languages, as well as materials in Korean. Petrova based the *Description*'s introduction on previously published materials, explaining book culture in Korea, features of manuscripts, xylographs, and movable type printed book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names and names of places and eras(reigns), and the Russian transliteration of Korean. Petrova included in the *Description* some Japanese and Chinese books related to Korea. She grouped the books into 15 sections: General History of Korea, History of Japanese Invasion (1592-98), History of 19th Century Korea, History of Korean Foreign Relations, Korean Books on Chinese History, History of Confucianism in Korea, Geography, Ethnography, Law, Ideology, Language, Literature, Reference Books, Medicine, and Archive; in addition, the Ideology, Language, and Literature sections comprise several subsections. Petrova catalogued 236 items; she mentioned, however, some collections of literary works, *munjip*, in several sections depending on the subjects of their sections, so the total number of the catalogued works adds up to less than 236. For each item, the author follows the descriptive scheme and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author or compiler, the language in which the work is written, its contents, its external features, references, and translations into other languages, if any.

The *Description* is the first work in Russian concerned with old Korean books, and it provided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collection of old Korean books at the Institute. Petrova's *Description* is not only a catalogue of the collection, but also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Russian and Overseas Korean studies.

Key Words : Olga Petrova (1900-1993), *Description of the Written Heritage of Korean Culture*, Institute of Oriental Manuscript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P.A.Dmitrevsky(1851-1899), W.G.Aston(1841-1911), Korean studies in Russia